

내외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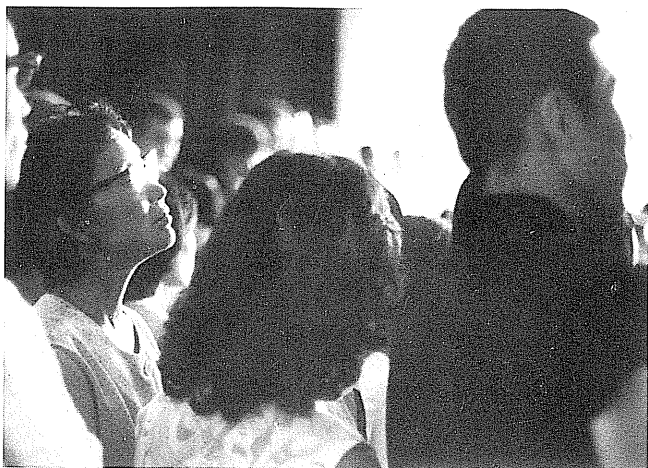
서울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서울 제4 와드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24일에 있었던 신권 지도자를 위한 역원회에서는 방문 총관리 역원인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장로가 지역 신권 지도자와 장로 정원회 지도자를 위한 특별 훈련 모임을 인도하였다. 그는 “장로 및 수련 장로를 강화함”이라는 주제의 필름스트립을 상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소단위 즉석 토론을 통해 각 와드의 지도자는 즉석에서 신권 집행 위원회를 갖기로 했다.

25일에 있었던 일반 총회는 각 와드와 지부에서 온 성도로 4와드 예배당을 메웠으며, 입장을 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야외 잔디밭에 천막을 치고 스피커를 장치하여 실내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집회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게 하였다.

모사이야서 2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뵈낼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의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에서 이호남 부장과 김창선 제1보좌, 최육환 제2보좌가 말씀을 맡았으며, 끝으로 방문 총관리 역원인 화이언스 장로가 “가정에서의 질서와 모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한국 성도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도 아울러 전달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7명의 장로가 새로이 탄생되었으며, 2명의 70인이 안수 성임되었다.



중부 지방 대회

7월 21일 대전 지부에서는 새로 부임하신 유진 피 톨 선교부장 감리하에 중부 지방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성도들을 3년간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엘 에드워드 브라운 선교부장은 해임되고 유진 피 톨 선교부장이 한국 선교부장으로 새로 지지를 받았다.

톨 선교부장을 맞이한 중부 지방부 성도들은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강조하시며 회원들에게 금식과 기도로써 구도자를 찾도록 권고하신 선교부장의 말씀과 톨 자매님의 영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 가운데서 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신 인철, 천 의범, 정 지순 형제들이 장로로 지지, 성임을 받았다.

대전, 동대전, 전주, 청주, 군산 지부에서 온 성도들은 “가장의 사명”과 “말일성도는 특이한 백성”이라는 주제의 영적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음 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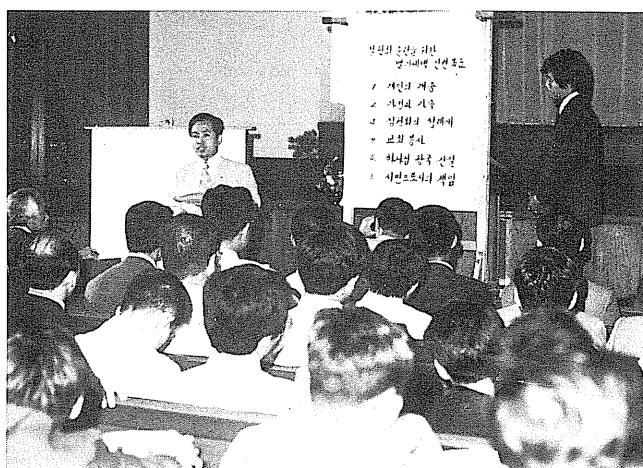
지역 모임

한국 지역의 지역 모임이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 서울 지역 모임에서는 선교부 산하 경기 지방부와 중부 지방부 역원이 서울 스테이크와 함께 순서를 맡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인 워커 자매와 초등학교 임원인 레몬 자매, 지역대표인 앤드루스 형제가 동석해서 지역 지도자의 발표를 도왔다.

내년 8월에 있을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이기도 한 이번 모임에서는 보조 조직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점검 확인하였고 내년을 대비한 활동 계획을 재정리하였다. 모임은 4개 반으로 분반되었으며, 신권 반에서는 중부 지방부의 예산 운영, 경기 지방부의 선교 사업, 서울 스테이크의 장로 정원회 강화가 주요 토론점이 되었다. 상호부조회와 초등학교에서는 본부 임원의 협조를 받은 보조 조직장이 모임을 진행하였고, 멜기세덱 상이회는 담당 고등평의원의 사회로 모임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주최 제 2 회 청소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에서 준비한 청소년 대회가 1974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경기도 시흥군 소재 덕장 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각 위원회에서 계획, 준비, 진행해 왔다.

대회 참가 청소년들은 비록 대회 기간중에 내린 비로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이 대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힘으로도 참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테이크 부장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의 말씀, 공과, 세미나, 체육, 오락, 캠프화이어등은 청소년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대회에는 청소년 135명, 고문, 임원 20명등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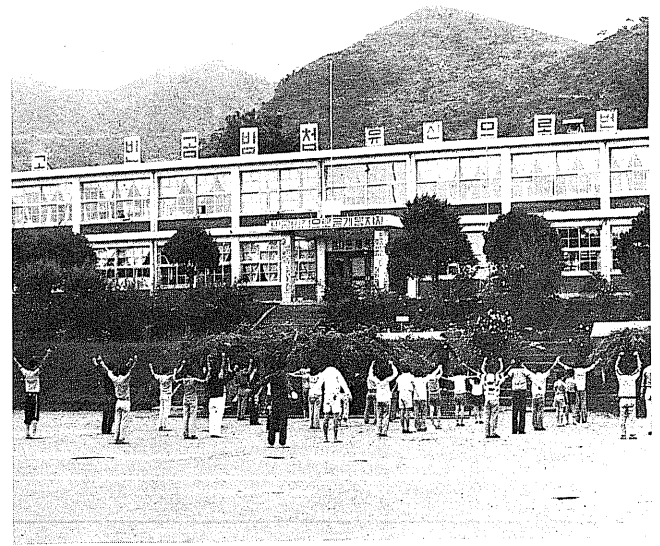
한편 서울 스테이크의 청년 대회가 1974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3박 4일동안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로 빈틈없이 진행된 이번 대회가 대회 마지막 날 가진 간증회가 무려 4시간이나 계속되었다는 점으로도 얼마나 훌륭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지방부 청소년 대회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50여 경기 지방부 산하 청소년들은 팔당 댐에서 약 3키로 떨어진 조안 국민학교에서 연례 행사인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오락, 체육, 민속 무용, 무도회 및 경전 세미나등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단체 생활에 있어서의 규범과 질서를 익혔으며 신앙속에서 단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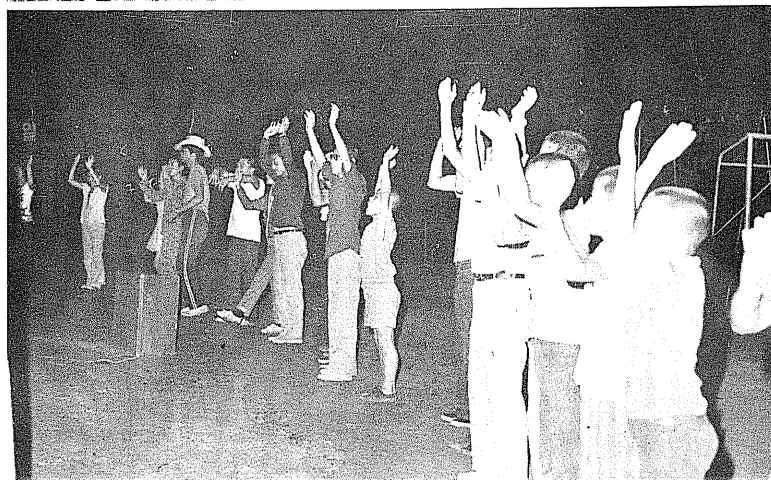


호남 지방부 청소년 대회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이 순신장군의 유적지로 알려진 전남 승주군 신성포에서 제2회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목포, 여수, 광주, 동광주 등지에서 80여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장기 대회, 단막극 세미나, 무용 및 운동을 주축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즐겼다.

바닷가에서 청소년 대회를 즐긴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강한 간증을 끝으로 훌륭했던 대회를 마쳤다.



중부 지방부 청소년 대회

중부 지방부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법주국민학교에서 제2회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54명.

대회는 지부별 장기 자랑, 등산 대회, 대별 촌극, 독창, 2중창, 합창 경연, 신학 세미나, 사생대회, 백일장, 체육, 무용, 캠프 화이어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회 2일에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계곡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복천암, 중사자암, 해발 일천 미터의 속리산 문장대까지 올라 갔으며, 임 경영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경업대를 거쳐, 장군수를 마시고, 법주사, 정이품송도 관광, 심신을 연마하는 등산을 하였다.

이 광우 동대전 지부장의 신학 강의와 방문하신 이 호남 신학 연구원장의 영적 말씀은 회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여러 형제 자매의 뜨거운 간증은 이번 대회를 크게 빛내는 것이었다.

준비와 진행에는 최 병윤, 천 의범 형제가 수고하였으며 유병희, 윤 경식, 박 인자, 김 경숙, 노 수연 자매가 끝까지 취사를 맡아주었으며,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서로 작별을 아쉬워 하였다.

학교 교실을 대회 기간중 빌려주신 법주 국민학교 박 영운 교장에게 감사하며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제 3 와드, 와드 대회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제3 와드에서는 와드 대회가 열렸다.

7일에 갖인 상향회 대회에는 약 25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상호 부조회 자매들이 준비한 송편과 시루떡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활동으로는 선교사의 인디언 춤과 민속 무용, 그리고 상향회 역원들이 준비한 연극 "점을 칩시다" 등이 있었는데 모두가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깃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8일의 주일학교와 성찬식에는 약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 스테이크 부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과 의지로 한데 뭉쳐 이 땅에 시온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자고 역설하였다.



고 김호직 형제님 15주기 추도식

지난 8월31일 망우리 김형제님 묘소에는 20여 회원이 모여 이 땅에 주님의 참다운 교회가 들어오는 데 기동역할을 하신 형제님의 위업을 기리는 추도식을 가졌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실 때 같은 연구실 물론 동료교수의 감화로 개종한 김형제님은 최초의 한국인 물론으로서 초기 회원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특히 그분이 강조하신 "나의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만,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아직도 많은 회원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형제님은 건국 대학교 축산대학장, 문교부 차관등을 역임한바 있다.

